

雇 傭 職 業 能 力 開 發 研 究
 第16卷(3), 2013. 12, pp. 1~28
 © 韓 國 職 業 能 力 開 發 院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결정요인 분석*

정 하나** · 김 상 기***

본 연구는 '2008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친구 및 지인의 소개나 추천을 통한 입직을 사회연결망 입직으로 정의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인적 특성, 개인 생산성, 졸업대학 특성과 더불어 부모소득, 부모로부터의 학비조달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로짓분석한 결과 토익점수가 낮거나 자격증이 없고 혹은 직업훈련 및 교육경험이 없는 자, 전문대·지방소재 대학·인문계열 졸업자가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확률이 높다. 또한 부모의 현재 소득과 부모로부터 대학 학비조달 여부가 자녀 입직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자는 받지 않은 자에 비해 사회연결망 입직 확률이 높고 지원의 정도가 클수록 입직 확률 또한 높았다. 공식경로가 다하지 못하는 일자리 매칭(job matching)을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이 높여준다면 긍정적 의미가 있겠지만 근로자 생산성이 아닌 요소가 입직경로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연결망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주제어: 사회연결망, 입직경로, 개인 생산성, 졸업대학 특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투고일: 2013년 9월 27일, 심사일: 11월 11일, 게재확정일: 12월 11일

* 이 논문은 2013년 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임을 밝힙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hnjung@keis.or.kr)

*** 제2저자(교신저자), 신라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abekim@silla.ac.kr)

I. 서론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경제적 충격 이후 한국의 고용창출 능력은 둔화되었으며 특히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OECD(2012)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청년 고용률(15~29세)은 23.1%로 OECD 평균인 39.5%보다 16.4%p 낮다. 고교생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71.3%)은 높지만 경직된 노동시장, 학력 간 불일치, 일자리 수급 불일치, 유보임금 상승 및 고용의 질 악화 등으로 인해 노동수요 뿐 아니라 노동공급의 유인이 하락하고 있다(박강우·홍승제, 2009). 더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는 상위 일자리 부문으로의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어 공개채용과 같은 공식경로 입직은 매우 치열해진 상태이다. 이 같은 경우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기초한 사회연결망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모세대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더 나은 조건의 직업은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혈연, 학연, 지연 등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 중 사회연결망이 인력수급 매칭을 원활하게 하는 등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Reid, 1972; Datcher, 1983; Montgomery, 1991; Lin, 2001, Calvo-Armengol & Jackson, 2004) 그와 정반대로 특정집단을 위한 폐쇄적인 연결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고용기회의 형평성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치를 방해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8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구직경로와 입직경로 사이에는 개념상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구직경로는 직업탐색 시 정보획득에 사용되는 경로, 예를 들어 공공 및 사설 취업알선기관, 신문·TV 등 언론매체, 취업박람회, 생활정보지 등의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아우른다. 한편 입직경로는 실제 취업이 된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일자리를 갖게 되었는지를 일컫는 것으로 공개 및 수시 채용시험, 회사 측의 스카우트, 가족 및 지인의 추천 및 소개 등을 포함한다. Ioannides와 Loury(2004)는 공공 및 사설 취업알선기관, 신문 등의 언론매체, 학교 취업정보실 등을 이용하는 것을 공식경로(formal source)로 정의했

고, 현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친구나 선후배 등의 소개나 추천에 의한 경우라면 그것을 비공식경로(informal source)로 정의하였다. 오성욱·김균·이만기(2010) 역시 한국의 취업경로를 이와 유사하게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기반 하여 입직경로를 분류하되 가족, 친구, 지인,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근무자의 소개나 추천에 의해 입직한 경우 등을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으로 정의한다. 이를 통해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결정요인을 개인 생산성, 졸업대학 특성,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어떤 특성이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입직경로로서의 사회연결망과 입직자 특성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을 살핀다.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5장은 연구의 결론을 정리한다.

II. 연구 배경

1. 입직경로로서의 사회연결망

입직경로는 공식경로와 비공식경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식경로란 채용시험에 합격했거나 취업박람회 등의 구인구직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입직한 경우를 일컫는다. 한편 가족, 친지, 지인의 소개나 추천 등에 의해 입직한 경우 비공식경로로 분류하며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을 통한 입직이라 정의하기도 한다(Ioannides et al., 2004).

<표 1>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정의

	응답 내용	조작적 정의
입직경로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으로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추천으로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추천으로	
	(공개 및 수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그 외 경로를 통한 입직
	회사 측의 특별채용(스카우트)에 의하여	
	개인사업 시작(가족사업 참여)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기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9).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의 질적 정보들이 사회연결망을 통해 공유된다(Lin, 2001; 김성훈, 2003). 구직자들은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타인에 대한 평가정보를 공유하여 보상 및 처벌 등의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Granovetter, 2005). 공식경로를 통한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반해 사회연결망을 통한 정보공유는 개인적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공식적 방법을 통한 구인 및 구직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시간, 비용 및 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일자리 매칭에 효과적이다(Reid, 1972; Datcher, 1983; Montgomery, 1991; Lin, 2001). 이와 관련해 Coleman(1988)은 사회연결망이 유용한 정보의 공유, 낮은 거래비용, 모니터링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¹⁾ Lin(2001) 역시 사회 자본이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고 중요한 행위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적 보증서(social credentials)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등의 행위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직은 이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일자리 매칭(job matching)의 적합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교육수준, 기술 적합도 및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김영철, 2012; Calvo et al., 2004).

하지만 한국노동패널의 3차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연결망이 공식경로를 통한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성훈(2005)은 사회연결망의 효율적 정보전달 기능이 취업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가설이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오

1) 김용학(2004)에 따르면 사회연결망이 경제적 효율성이나 경제성장과 같은 도구적 효율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면 사회 자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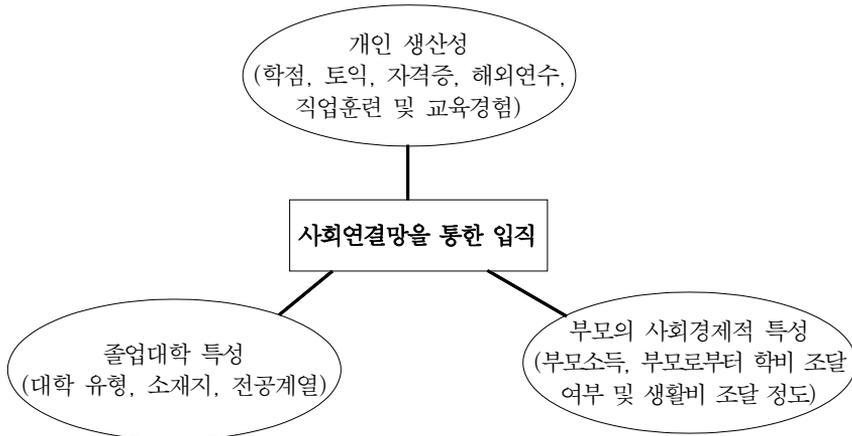
히려 공식경로를 통한 구직 시 발생하는 치열한 경쟁이 구직자의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했다. 이처럼 한국 노동시장에서 사회연결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연줄”이라는 단어를 통해 대변된다. 김용학(2004)은 연결을 “보편주의적 성격에 의해 맺어지는 개방적 관계”로 정의한 반면 연줄은 “지연이나 학연, 혈연처럼 특수적이고 폐쇄적인 관계”로 정의했다. 연줄주의는 구조적 부패, 사회적 갈등, 사회적 조정 비용,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떨어뜨린다는 점 등에서 여러 부작용과 한계를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연줄은 단순히 개인 간의 관계나 연결이라기보다 효과적인 자원을 얻는데 필요한 개인적 배경으로서 공식적인 절차나 방법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비공식적인 수단이나 통로로 이해된다. 특히 한국은 가족 중심의 연줄이 매우 중시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오히려 연줄의 역할이 강화되는 현상이 존재한다(김선업·임희섭·박길성, 1993; 김성훈, 2005). 이와 같은 형태로 가족배경이 청소년기 혹은 대학 시기의 자녀 학업성취도²⁾ 혹은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에서 더 나아가 성인이 된 자녀의 입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한 한국사회에서 구직자에게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은 고용기회의 형평성을 떨어뜨리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

2. 사회연결망과 입직자 특성

소개나 추천 등의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는 개인의 노동 생산성, 졸업대학 특성 예를 들어, 졸업한 대학의 4년제 여부 및 수도권 위치 여부, 전공종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사회연결망을 활용한 입직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 초년생의 사회연결망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부모소득 및 부모로부터 학비 조달 여부와 생활비 조달 정도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그림 1)).

2) 가족배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중 김현주·이병훈(2007)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요인이며, 자산 총액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방하남·김기현(2002)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수능점수 분포상의 상위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으며, Davis-Kean(2005) 역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대학성취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림 1]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에 영향을 주는 요인



Granovetter(1995)는 친척, 가족의 지인, 직장을 통해 알게 된 지인 등을 ‘가족-사회 연결 관계(family-social contacts)’로 정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매사추세츠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입직 시 ‘가족-사회 연결 관계’를 활용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약 40% 정도라는 사실을 제시했다. 구직경로와 구직자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해외연구로 Montgomery(1991)는 사회구조 특성에 따른 사회연결망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성 및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연결망에 의한 노동시장 성과가 낮음을 보였고, Marsden과 Jeanne Hurlbert(1988)는 구직자의 나이와 경력이 많아질수록 사회연결망과 같은 비공식경로를 이용하는 정도가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반면 Ports(1993)는 1992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16~19세의 구직자 그룹의 비공식경로를 이용한 경우가 18%, 20~24세 그룹은 22%, 24~55세와 55~64세 그룹은 26.5%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비공식경로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보였다. Blau와 Philip(1990)은 실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직자나 구직자나 친구·가족 등의 지인을 통해 구직 정보를 얻는 비중이 비슷하다고 주장하였으나 Ioannides et al.(2004)는 1993년 PSID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직자의 15.5%, 구직자의 8.5%가 사회연결망을 통해 구직 정보를 얻는다고 밝혔다. Elliot(1999)에 따르면 경력이 12년 이하의 구직자의 경우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비공식경로를 통한 입직 비율이 낮은 빈곤율 지역에 비해 높았다. 국내연구로는 오성욱 외(2010)에서 40~60대의 구직자의 경우 ‘친구, 친지의 소개’에 의한 구직 응답자가 가장 많아 연령이 높을수록 친구나 친지와 같은 개인 네트워크를 활

용한 구직활동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력별로는 고졸의 경우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통한 구직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이상 학력에서는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구직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구직방법의 만족도별로는 '매우 만족'을 응답한 자의 40%가 '친구, 친지의 소개'로 구직했다고 응답했고,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구직경로 역시 '친구나 친지의 소개'가 63%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Kramarz와 Skans(2006)에 따르면 부모의 임금과 경력은 자녀의 추천을 통한 입직 여부, 졸업 후 입직까지의 기간, 임금 및 일자리 지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Scoppa(2009)는 이탈리아 공공부문(public sector)에 종사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의 경우 공공부문에 취업할 확률이 최대 44%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기업에 비해 임금, 안정성,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부모가 자신의 지위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녀들이 공공부문에 입직할 수 있도록 한 결과이다. 그 외 세대 간 인적자본 이전을 연구한 Lentz와 Laband(1989)는 부모가 의사인 자녀의 경우 의대에 진학할 확률이 부모가 의사가 아닌 사람에 비해 14%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의 3차년도 조사인 2008년 자료를 이용한다. GOMS 데이터는 졸업 이듬해 1회 조사 후, 2년 후 1회에 한하여 추적 조사된 단기패널이며 본 분석에서 사용한 2008년 자료는 2007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데이터이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표 2>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을 나타내는 변수로 '가족, 친지, 지인, 학교(학원) 선생님 및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나 추천'에 의해 입직했는지 여부이다. 남성의 경우 전체 8,346명의 31.0%가, 여성은

5,784명 중 30.72%가 사회연결망 입직자이다. 평균값이긴 하나 취업률, 노동시장 처우 등에서 남성에 비해 열위인 여성이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이 많을 것이란 추측과는 다른 수치이다. 개인의 생산성이 입직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대학 평균 학점, 토익점수, 자격증 유무, 해외연수경험 유무, 직업훈련 및 교육경험 유무이다. 학점은 학교별로 만점이 4.5, 4.3, 4.0으로 상이한 경우를 표준화시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으며, 토익점수는 회귀분석 시 로그 값을 취해 사용하였다.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등을 비롯한 3,348개의 공인자격증 중 하나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응답자의 평균 학점은 100점 만점에 81.62점이며 성별로는 남성 80.65점, 여성 83.18점으로 여성의 평균 학점이 더 높다. 토익점수는 990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735.83점이며 남성의 평균 토익점수가 여성에 비해 약 10점 가량 높다. 자격증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73.59%로 남성(71.97%)보다 여성(76.18%)의 자격증 취득 비율이 더 높고, 해외연수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3.42%로 여성(31.99%)에 비해 남성(35.72%)의 경험 비율이 더 높다. 직업훈련 및 교육경험이 있는 자는 전체의 25.79%였으며 남녀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졸업대학 유형은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교육 대학으로 나뉜다. 전체 응답자 중 67.89%가 4년제 졸업자이며 이어 29.57%가 2년제 대학 졸업, 2.54%가 교육 대학 졸업자이다. 남성(70.35%)이 여성(64.35%)보다 4년제 졸업 비율이 높으나 2년제와 교육 대학 졸업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다. 졸업대학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전체 14,130명 중 경기·강원권 소재의 대학에 졸업한 경우가 26.28%로 가장 높으며 이어 영남권(25.35%)이 서울권(19.79%)에 비해 높다. 남성의 경우 경기·강원권 졸업자가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은 영남권 졸업자가 가장 많다. 전공분류를 살펴보면 남성은 공학계열 비율이 41.94%로 매우 높은 반면 여성의 공학계열 비율은 10.58%에 지나지 않는다. 남성은 공학계열 다음으로 사회계열 졸업 비율이 높았고, 가장 낮은 것이 교육 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사회계열 졸업 비율이 23.25%로 가장 높으며 이어 그 다음이 인문계열 > 예체능계열 > 교육계열 > 자연계열 순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현재 (2009년 9월 1일 기준) 세전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13,771명 중 200~299만 원 사이가 25.37%로 가장 많고 이어 300~399만 원 > 100~199만 원 > 400~499만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99만 원 미만의 경우는 전체의 7.02%,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3.43%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자녀 대학 재학 시 학비지원 여부는 전체 응답자 3,854명 중 71.17%가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83%였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지원받은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의 비율은 지난 3개월 동안 평균(2009년 6~8월) 지출한 돈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 변수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대학 재학 시절의 용돈 비율이 아니고 졸업 이후 부모로부터 받은 재정지원의 정도로 해석되어야 한다.³⁾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91.12%가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10% 미만 3.98%, 20~40% 미만 2.36%로 나타났다. 생활비의 100%가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에 의한 것이라고 응답한 자는 남성 0.57%, 여성 0.66%이다.

3)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부모학력, 대학입학 당시 부모직업, 대학입학 당시 부모소득, 현재 부모소득, 부모로부터 학비조달 여부, 부모의 현재 생활비지원 비율을 사용하였다. 이 중 부모학력, 대학입학 당시 부모직업, 대학입학 당시 부모소득은 [모형. 1]~[모형. 4]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학비조달 여부와 생활비지원 비율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자녀의 부모 특성에 대한 의존성 또한 반영한다고 판단되며, 입직 당시의 생활비지원 비율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현재 생활비지원 비율 변수를 사용하였다. 비록 입직시점과 조사시점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사용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

변수		전체 (n=14,130)		남성 (n=8,346)		여성 (n=5,784)	
종속변수	변수설명	Obs.	%	Freq. (X=1)	% (X=1)	Freq. (X=1)	% (X=1)
Sc_netwrk	입직유형	14,130	100	8,346	100	5,784	100
Sc_netwrk_1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4,364	17.15	2,587	31.00	1,777	30.72
Sc_netwrk_2*	그 외 경로를 통한 입직	9,766	82.85	5,759	69.00	4,007	69.28
독립변수_연속	변수설명	Obs.	Mean	Mean	sd	Mean	sd
Age	나이(세)	14,130	27.33	28.12	4.62	26.19	5.80
GPA	학점(점)	3,854	81.62	80.65⁴⁾	8.16	83.18	7.79
Toeic	토익점수(점)	3,854	735.83	739.58	147.31	729.80	156.83
독립변수_더미	변수설명	Obs.	%	Freq. (X=1)	% (X=1)	Freq. (X=1)	% (X=1)
Certification	자격증 유무	3,854	100	2,376	100	1,478	100
Certification_1*	있음	2,836	73.59	1,710	71.97	1,126	76.18
Certification_2	없음	1,018	26.41	666	28.03	352	23.82
Abroad	해외연수경험 유무	3,854	100	2,376	100	1,478	100
Abroad_1*	경험 있음	1,288	33.42	528	35.72	760	31.99
Abroad_2	경험 없음	2,566	66.58	950	64.28	1,616	68.01
Training	직업훈련 및 교육경험 유무	3,854	100	2,376	100	1,478	100
Training_1*	있음	994	25.79	611	25.72	383	25.91
Training_2	없음	2,860	74.21	1,765	74.28	1,095	74.09
School	졸업대학 유형	14,130	100	8,346	100	5,784	100
School_1*	2년제 대학	4,178	29.57	2,395	28.7	1,783	30.83
School_2	4년제 대학	9,593	67.89	5,871	70.35	3,722	64.35
School_3	교육 대학	359	2.54	80	0.96	279	4.82
Province	졸업대학 소재지	14,130	100	8,346	100	5,784	100
Province_1*	서울권	2,797	19.79	1,527	18.3	1,270	21.96
Province_2	경기·강원권	3,714	26.28	2,274	27.25	1,440	24.9
Province_3	충청권	2,110	14.93	1,294	15.5	816	14.11

〈표 계속〉

- 4) 학점, 토익점수, 자격증 유무, 해외연수 유무, 직업훈련 및 교육경험 유무, 부모의 대학 학비 지원 여부 변수는 관측치 수가 다른 통제변수와 상이하였기 때문에 남성 2,376명, 여성 1,478명의 응답치를 사용한다.

독립변수_더미	변수설명	Obs.	%	Freq. (X=1)	% (X=1)	Freq. (X=1)	% (X=1)
Province_4	영남권	3,582	25.35	2,124	25.45	1,458	25.21
Province_5	제주·호남권	1,927	13.64	1,127	13.5	800	13.83
Major	전공분류	14,130	100	8,346	100	5,784	100
Major_1*	인문계열	1,530	10.83	668	8	862	14.9
Major_2	사회계열	3,031	21.45	1,686	20.2	1,345	23.25
Major_3	교육계열	1,127	7.98	322	3.86	805	13.92
Major_4	공학계열	4,112	29.1	3,500	41.94	612	10.58
Major_5	자연계열	1,795	12.7	1,006	12.05	789	13.64
Major_6	의약계열	895	6.33	380	4.55	515	8.9
Major_7	예체능계열	1,640	11.61	784	9.39	856	14.8
Pa_income	부모 현재 소득	13,771	100	8,143	100	5,628	100
Pa_income_1*	0~99만 원 미만	967	7.02	584	7.17	383	6.81
Pa_income_2	100~199만 원 미만	1,966	14.28	1,227	15.07	739	13.13
Pa_income_3	200~299만 원 미만	3,494	25.37	2,156	26.48	1,338	23.77
Pa_income_4	300~399만 원 미만	3,119	22.65	1,826	22.42	1,293	22.97
Pa_income_5	400~499만 원 미만	1,769	12.85	971	11.92	798	14.18
Pa_income_6	500~699만 원 미만	1,410	10.24	776	9.53	634	11.27
Pa_income_7	700~999만 원 미만	573	4.16	314	3.86	259	4.6
Pa_income_8	1,000만 원 이상	473	3.43	289	3.55	184	3.27
School_fee	부모의 대학 학비지원	3,854	100	2,376	100	1,478	100
School_fee_1*	지원 없었음	1,111	28.83	698	29.38	413	27.94
School_fee_2	지원 받았음	2,743	71.17	1,678	70.62	1065	72.06
Cost_ratio	부모의 생활비지원	13,696	100	8,097	100	5,599	100
F_support_1*	받지 않는다	12,480	91.12	7,490	92.5	4,990	89.12
F_support_2	10% 미만	545	3.98	257	3.17	288	5.14
F_support_3	20~40% 미만	323	2.36	169	2.09	154	2.75
F_support_4	40~60% 미만	142	1.04	72	0.89	70	1.25
F_support_5	60~80% 미만	70	0.51	34	0.42	36	0.64
F_support_6	80~100% 미만	53	0.39	29	0.36	24	0.43
F_support_7	100%	83	0.61	46	0.57	37	0.66

주: *는 기준변수를 의미함.

<표 3> 성별, 연령별 입직경로 특성

(단위: 명, %)

입직경로		성별		연령		Total	
		남성	여성	~30세 이하	31세 이상~		
사회 연결망을 통한 입직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으로	723 (8.7)	583 (10.4)	1,251 (9.8)	55 (4.2)	1,306 (9.2)	4,364 (17.2)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추천으로	1,525 (18.3)	898 (15.5)	2,074 (16.2)	349 (26.5)	2,423 (17.2)	
	그 직장 근무자의 소개/추천으로	339 (4.1)	296 (5.1)	568 (4.4)	67 (5.1)	635 (4.5)	
그 외 경로	(공개 및 수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4,735 (56.7)	3,368 (58.2)	7,618 (59.5)	485 (36.9)	8,103 (57.4)	9,766 (82.9)
	회사측의 특별채용 (스카우트)에 의하여	511 (6.1)	304 (5.3)	726 (5.7)	89 (6.8)	815 (5.8)	
	개인사업 시작 (가족사업 참여)	319 (3.8)	176 (3.0)	274 (2.1)	221 (16.8)	495 (3.5)	
	취업박람회를 통하여	18 (0.2)	15 (0.3)	31 (0.2)	2 (0.2)	33 (0.2)	
	기타	176 (2.1)	144 (2.5)	273 (2.1)	47 (3.6)	320 (2.3)	
Total		8,346	5,784	12,815	1,315	14,130	
		100	100	100	100	100	

<표 3>을 통해 현 직장 입직의 주된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자는 전체 14,130명 중 17.2%인 4,364명이며, 그 외 경로를 통해 입직한 자는 82.9%인 9,766명이다. 세부 입직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개 및 수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입직한 경우로 전체 응답자의 57.4%로 한국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입직경로가 채용시험에 따른 입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로는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추천으로 입직한 경우 →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으로 → 회사 측의 특별채용(스카우트)에 의하여 순으로 나타난다. 공개 및 수시 채용시험에 의한 입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나 추천 등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도 주된 경로로 나타난다.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

개/추천으로 입직한 경우는 남성 18.3%, 여성 15.5%로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공개 및 수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입직한 남성은 전체 남성의 56.7%인 4,735명이다. 여성은 전체의 58.2%로 남성에 비해 약 2%p 높다. 한편 31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추천으로 인한 입직 비중은 30세 이하 근로자 16.2%에 비해 약 10% 높은 26.5%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공개 및 수시 채용시험 합격을 통한 입직 비율은 30세 이하에 비해 31세 이상 그룹의 비중이 23%p 낮은 36.9%로 나타난다.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학교 유형과 소재권역에 따른 입직경로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추천에 의해 입직한 경우는 전문대 근로자가 전체 대비 비중이 24.7%로 가장 높았고 4년제 → 교육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개 및 수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입직한 경우는 4년제 졸업자가 61.2%, 전문대 졸업자 45.5%로 나타났고 교육대 출신 근로자는 임용시험을 통해 입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2.2%로 그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김영철(2012)에 따르면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개채용의 경쟁을 통하여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있고, 경쟁에서 1차적으로 탈락한 이들이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입직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 졸업자의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비중이 4년제 그룹에 비해 10%p 이상 높은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를 통해 전공별로 입직경로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마찬가지로 교육계열 전공자는 공개 및 수시 채용시험에 합격한 비율이 가장 높고 사회계열 → 공학계열 →의 약계열 순으로 그 비중이 높았으며 평균보다 낮은 전공은 인문계열(56.3%)과 자연계열(54.9%), 가장 낮은 전공은 예체능계열(39.8%)로 평균보다 약 17.6%p 낮다. 취업이 잘 된다고 여겨지는 교육, 사회, 공학계열의 공식경로를 통한 입직 비율이 높았고, 취업이 잘 안 되는 전공으로 여겨지는 예체능계열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4> 졸업대학 특성별 입직경로 특성

(단위: 명, %)

입직경로	학교 유형			학교 소재권역					Total		
	전문	4년제	교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영남	제주 호남			
사회연 결망 을 통 한 입 직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으로	404 (9.7)	896 (9.3)	6 (1.7)	218 (7.8)	356 (9.6)	206 (9.8)	334 (9.3)	192 (10.0)	1,306 (9.2)	4,364 (17.2)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추천으로	1,033 (24.7)	1,380 (14.4)	10 (2.8)	290 (10.4)	633 (17.0)	364 (17.3)	676 (18.9)	460 (23.9)	2,423 (17.2)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추천으로	209 (5.0)	425 (4.4)	1 (0.3)	148 (5.3)	171 (4.6)	93 (4.4)	133 (3.7)	90 (4.7)	635 (4.5)	
	(공개 및 수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899 (45.5)	5,873 (61.2)	331 (92.2)	1,890 (67.6)	2,091 (56.3)	1,188 (56.3)	2,020 (56.4)	914 (47.4)	8,103 (57.4)	
회사 측의 특별채용(스카 우트)에 의하여	272 (6.5)	542 (5.7)	1 (0.3)	151 (5.4)	250 (6.7)	122 (5.8)	193 (5.4)	99 (5.1)	815 (5.8)		
개인사업 시작 (가족사업 참여)	244 (5.8)	250 (2.6)	1 (0.3)	46 (1.6)	123 (3.3)	80 (3.8)	146 (4.1)	100 (5.2)	495 (3.5)		
취업박람회 통하여	6 (0.1)	27 (0.3)	0 (0.0)	4 (0.1)	10 (0.3)	3 (0.1)	12 (0.3)	4 (0.2)	33 (0.2)		
기타	111 (2.7)	200 (2.1)	9 (2.5)	50 (1.8)	80 (2.2)	54 (2.6)	68 (1.9)	68 (3.5)	320 (2.3)		
	4,178 100	9,593 100	359 100	2,797 100	3,714 100	2,110 100	3,582 100	1,927 100	14,130 100		

이와 반대로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 및 추천으로 입직한 경우는 예체능계열이 2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인문계열이 높았다. 그 비중이 낮은 전공은 공학, 의약 및 교육계열이다. 이를 통해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비중이 높은 근로자의 특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 되지 않는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남을 보았다. 이를 통해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추천을 통한 입직 여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선택되는 경로로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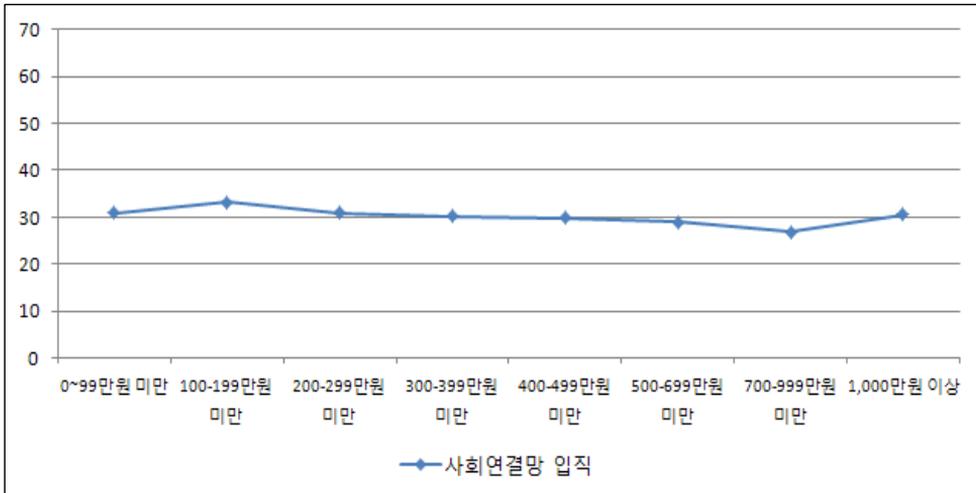
<표 5> 전공별 입직경로 특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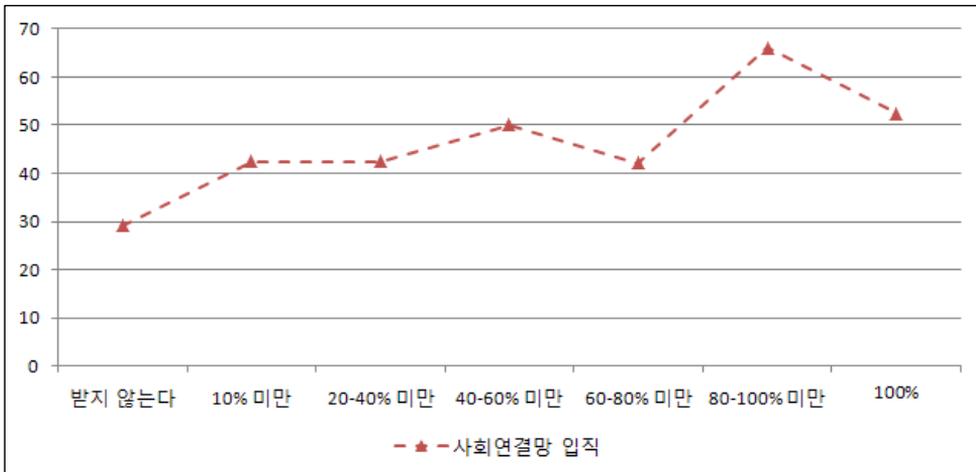
입직경로		전공계열							Total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 계열	공학 계열	자연 계열	의약 계열	예체능 계열	
사회 연결 망을 통한 입직	학교(학원) 선생님의 소개나 추천으로	128 (8.4)	195 (6.4)	76 (6.7)	413 (10.0)	207 (11.5)	92 (10.3)	195 (11.9)	1,306 (9.2)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소개/추천으로	283 (18.5)	512 (16.9)	124 (11.0)	660 (16.1)	302 (16.8)	144 (16.1)	398 (24.3)	2,423 (17.2)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소개/추천으로	94 (6.1)	126 (4.2)	38 (3.4)	153 (3.7)	89 (5.0)	34 (3.8)	101 (6.2)	635 (4.5)
	(공개 및 수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862 (56.3)	1,821 (60.1)	804 (71.3)	2,461 (59.9)	985 (54.9)	517 (57.8)	653 (39.8)	8,103 (57.4)
	회사 측의 특별채용(스카 우트)에 의하여	87 (5.7)	174 (5.7)	33 (2.9)	246 (6.0)	106 (5.9)	46 (5.1)	123 (7.5)	815 (5.8)
	개인사업 시작 (가족사업 참여)	38 (2.5)	129 (4.3)	24 (2.1)	91 (2.2)	64 (3.6)	17 (1.9)	132 (8.1)	495 (3.5)
그 외 경로	취업박람회 통하여	6 (0.4)	7 (0.2)	0 (0.0)	14 (0.3)	3 (0.2)	0 (0.0)	3 (0.2)	33 (0.2)
	기타	32 (2.1)	67 (2.2)	28 (2.5)	74 (1.8)	39 (2.2)	45 (5.0)	35 (2.1)	320 (2.3)
	Total	1,530 100	3,031 100	1,127 100	4,112 100	1,795 100	895 100	1,640 100	14,130 100

[그림 2]를 통해 부모의 현재 소득 정도에 따라 사회연결망 입직 비율의 정도를 살펴 보면 부모의 소득이 많아질수록 자녀의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 3]을 통해 부모의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 정도에 따라 자녀의 입직경로 비율을 살펴보면 지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사회연결망을 통한 평균적인 입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2] 부모의 소득구간에 따른 사회연결망 입직 비율



[그림 3] 부모의 재정지원 정도에 따른 사회연결망 입직 비율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을 이용한 입직 여부가 종속변수이므로 이항 선택성(Binary Choice)을 가진다. 이 같은 경우 일반선형회귀(Ordinary Least Square)가 가진 기본 가정, 즉 종속변수가 연속이며 독립변수가 선형성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이 위배됨으로써 일반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할 경우 분석의 정확도 및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즉, 두 가지 선

택 항목에 대해서만 분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차항에 대한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가정해야 한다. 이항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π_i 라 할 때 $0 \leq \pi_i \leq 1$ 을 만족해야 하며 오차항 ϵ_i 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 로짓모형(Logit Model) 분석을 사용한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식 (1)~식 (2)와 같다. 식 (1)로부터 이항 선택의 확률이 오차항의 누적분포함수로 정의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속확률분포함수에서 정의되는 형태의 로짓분포함수는 식 (2)와 같다.

$$\begin{aligned}
 P(y_i=1|X_i) &= P(-\epsilon_i < X_i\beta | X_i) \\
 &= F(X_i\beta) \\
 P(y_i=0|X_i) &= 1 - F(X_i\beta) \quad \dots\dots\dots \text{식 (1)}
 \end{aligned}$$

$$\epsilon_i \sim \text{logistic}, F(X_i\beta) = \Lambda(X_i\beta) = \frac{e^{X_i\beta}}{1 + e^{X_i\beta}} \quad \dots\dots\dots \text{식 (2)}$$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확률모형이므로 특정 설명변수 한 단위의 변화에 따른 확률의 변화를 해당 설명변수에 대해 1계 편미분하여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의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이다. 식 (3)을 통해 로짓모형의 한계효과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frac{\partial \text{Prob}(y=1)}{\partial X_i} &= \frac{\partial}{\partial X_i} \left(\frac{e^{\sum_{i=1}^I \beta_i X_i}}{1 + e^{\sum_{i=1}^I \beta_i X_i}} \right) = \left(\frac{e^{\sum_{i=1}^I \beta_i X_i}}{(1 + e^{\sum_{i=1}^I \beta_i X_i})^2} \right) \beta_k \\
 &= \left(\frac{e^{\sum_{i=1}^I \beta_i X_i}}{1 + e^{\sum_{i=1}^I \beta_i X_i}} \right) = \left(\frac{1}{1 + e^{\sum_{i=1}^I \beta_i X_i}} \right) \beta_k \\
 &= P(1 - P) \beta_k \quad \dots\dots\dots \text{식 (3)}
 \end{aligned}$$

단, $P = \text{Prob}(y = 1)$

IV. 분석 결과

1. 사회연결망을 이용한 입직의 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결정요인을 4가지 모형을 통해 살펴본다. 사용되는 독립변수는 그 종류와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특성에 따라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1절에서는 [모형. 1]과 [모형. 2]를 분석한다.

$$y_i = \alpha_0 + \beta_1 [male_i] + \beta_2 [age_i] + \beta_3 [age_i^2] + \epsilon_i$$

$$i = 1, \dots, n \quad \dots\dots\dots \text{[모형. 1]}$$

$$y_i = \alpha_0 + \beta_1 [male_i] + \beta_2 [age_i] + \beta_3 [age_i^2] + \beta_4 [gpa_i] +$$

$$\beta_5 [toeic_i] + \beta_6 [certifi_i] + \beta_7 [abroad_i] + \beta_8 [training_i] + \epsilon_i$$

$$i = 1, \dots, n \quad \dots\dots\dots \text{[모형. 2]}$$

[모형. 1]은 개인의 기본 인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나이²가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은 설명변수 한 단위의 변화에 따른 확률의 변화를 보기위해 한계효과 값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표 6>의 [모형. 1]의 한계효과 결과 값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연결망을 통해 입직할 확률이 1.7% 높다. 고용률, 평균 임금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OECD, 2009) 대졸자가 사회연결망을 통해 입직할 확률 또한 더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⁵⁾ 한편 인적 특성과 더불어 개인

5) 모형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위하여 [모형. 1]에 교호항(interaction term)을 이용하여 31세 이상 남성, 비서울권 소재 대학졸업 남성 변수를 포함하여 로짓분석 및 한계효과 분석을 시행한 결과 31세 이상 남성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비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남성은 1% 오차범위에서 한계효과가 0.111로 유의하게 나타나 남성의 비수도권 소재 대학졸업 특성이 비공식적 입직경로를 선택할 확률을 매우 높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 생산성이 입직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 2]를 통해 살펴보면 학점과 해외연수경험 여부는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경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토익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을 할 확률은 21.6% 낮았고, 자격증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 비해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을 할 확률이 5% 낮았다. 직업훈련 및 교육경험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 비해 4.4%가 사회연결망을 사용해 입직할 확률이 낮았다.

<표 6> 인적속성 및 개인 생산성이 사회연결망 입직에 미치는 영향

	[모형. 1]		[모형. 2]	
	Marginal Effect	S.E.	Marginal Effect	S.E.
성별(남성=1)	0.017*	(0.009)	0.004	(0.017)
나이	-0.022***	(0.005)	-0.011	(0.024)
나이 ²	0.000***	(0.000)	0.000	(0.000)
학점			0.099	(0.063)
토익점수			-0.216***	(0.025)
자격증 유무			-0.050***	(0.015)
해외연수 여부			0.009	(0.015)
직업훈련 및 교육경험 유무			-0.044***	(0.014)
Marginal effects after logit	0.309		0.196	
관측치	14,130		3,909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2.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사회연결망을 이용한 입직에 미치는 영향분석

본 절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자녀의 입직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인적 특성, 개인의 생산성 및 대학 특성, 전공 특성을 중심으로 [모형. 3]을 분석하고 [모형. 4]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현재 부모소득, 대학 재학 당시 부모에 의한 학비조달 여부 및 부모에게 받는 생활비 비율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y_i = \alpha_0 + \beta_1 [i n d i v_i] + \beta_2 [p r o d u c_i] + \beta_3 [s t y p e_i] \\ + \beta_4 [s p r o v i n c e] + \beta_5 [m a j o r_i] + \epsilon_i \\ i = 1, \dots, n \quad \dots\dots\dots \text{[모형. 3]}$$

$$y_i = \alpha_0 + \beta_1 [i n d i v_i] + \beta_2 [p r o d u c_i] + \beta_3 [s t y p e_i] + \beta_4 [s p r o v i n c e] \\ + \beta_5 [m a j o r_i] + \beta_6 [i n c o m e_i] + \beta_7 [s c h o o l f e e_i] + \beta_8 [f s u p p o r t_i] + \epsilon_i \\ i = 1, \dots, n \quad \dots\dots\dots \text{[모형. 4]}$$

부모의 현재 소득이 자녀의 비공식 입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 자녀의 입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모형. 3]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나이와 같은 인적 특성 변수가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교육 대학 졸업자는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사회연결망 입직경로를 활용할 확률이 13.4% 낮았으며, 학교 소재권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면 서울소재 대학 졸업자에 비해 지방소재 대학 졸업자의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확률이 더 높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호남 대학을 졸업한 경우 서울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사회연결망을 이용한 입직 확률이 1% 오차범위 내에서 7.5% 높은 확률을 나타낸다. 이어 충청 5.0% > 경기·강원 4.3% > 영남 2.9% 순으로 서울소재 대학 졸업자에 비해 지방으로 갈수록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확률이 높다. 다시 말해 지방으로 갈수록 계수 값이 커지고 있어 지방소재 대학을 졸업했을수록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확률이 커지는 것이다. 전공은 인문계열이 사회, 공학, 의약계열에 비해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 자연 및 예체능계열 졸업자는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확률이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모형. 4]에서는 부모소득과 더불어 대학 재학 당시 부모로부터 학비를 조달 받았는지 여부 및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 혹은 생활비의 비율이 자녀의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자녀가 청소년기 이하의 미성년일 때 자녀의 교육, 심리 상태 등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 한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부모의 지도와 간섭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의 대학 입시 설명회 뿐 아니라 졸업을 앞둔 취업설명회에 부모가 참석하는 등의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학 시절 자녀의 용돈이나 생활비 중 부모가 주는 돈의 비중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대리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 4]에서는 성별과 나이가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여부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 한편 토익점수, 자격증 유무, 직업훈련 및 교육경험 유무와 같은 개인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학교 유형과 대학 소재지, 전공이 미치는 효과의 부호는 [모형. 3]과 동일했다. 주요 변수인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현재 소득과 부모로부터의 대학 학비조달 여부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개월(2009년 6~8월)간 지출한 돈 가운데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자에 비해 용돈 혹은 생활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자의 경우 사회연결망을 통해 입직한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받은 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다면 경력, 전문성, 인적 네트워크 등으로 이루어진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입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높은 소득수준이 자녀의 입직경로에 미치는 영향보다 중요한 요인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정도로 판단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재정적 영향력이 높으면 자녀가 가족, 친지 및 지인을 통한 소개와 추천을 통해 입직할 확률이 높으며 그 영향력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확률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⁶⁾

부모의 소득 및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자녀의 취업경로에 미치는 효과 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만약 사회연결망과 같은 비공식경로를 통한 입직이 노동시장이 다하지 못하는 일자리 매치(job matching)를 높여준다면 가족, 친지 및 지인의 추천과 소개를 통한 입직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를 강조할 수 있겠지만 사회연결망의 단점, 예를 들어 연줄로 인한 폐해, 같은 생산성을 가진 근로자에게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재정적 지원이 자녀의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근로자 생산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가 입직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6) 부모의 경제력 및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를 반영하는 변수로 본 분석에서 사용한 부모의 생활비지원 변수는 한편으로 사회연결망을 통해 입직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아 생활비의 일부를 부모로부터 지원받았을 것이라는 가정 또한 가능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생활비지원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항로지 분석 결과 사회연결망을 통해 입직한 자가 그 외 경로 입직자에 비해 부모의 생활비지원을 유의하게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나 기타 인적속성, 생산성 변수, 졸업대학 특성, 가정배경 변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지 않는다. 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상이한 분석모형을 세워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추후 연구에서 다루도록 한다.

<표 7> 졸업대학 특성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사회연결망 입직에 미치는 영향

		[모형. 3]		[모형. 4]	
		Marginal Effect	S.E.	Marginal Effect	S.E.
성별(남성=1)		0.003	(0.018)	0.015	(0.019)
나이		-0.018	(0.024)	-0.010	(0.039)
나이2		0.000	(0.000)	0.000	(0.001)
학점		0.077	(0.065)	0.077	(0.068)
토익점수		-0.186***	(0.028)	-0.191***	(0.029)
자격증 유무		-0.041**	(0.015)	-0.040**	(0.016)
해외연수 여부		-0.004	(0.015)	-0.007	(0.015)
직업훈련 및 교육경험 유무		-0.040**	(0.014)	-0.031*	(0.015)
대학 유형 (기준=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0.004	(0.026)	0.012	(0.027)
	교육 대학	-0.134***	(0.027)	-0.134***	(0.027)
대학 소재지 (기준=서울)	경기·강원권	0.043**	(0.020)	0.048**	(0.020)
	충청권	0.050**	(0.025)	0.058**	(0.026)
	영남권	0.029**	(0.020)	0.034	(0.021)
	제주·호남권	0.075**	(0.031)	0.072**	(0.032)
진공계열 (기준=인문계열)	사회계열	-0.061**	(0.019)	-0.064	(0.020)
	교육계열	-0.002	(0.041)	0.004	(0.042)
	공학계열	-0.040**	(0.020)	-0.049**	(0.021)
	자연계열	-0.002	(0.023)	-0.008	(0.023)
	의약계열	-0.066**	(0.027)	-0.066**	(0.027)
	예체능계열	0.024	(0.034)	0.005	(0.033)
현재 부모소득	200~400만 원			-0.023	(0.018)
	400~700만 원			-0.002	(0.020)
	700만 원 이상			-0.004	(0.026)
학비조달방법	부모에 의한 학비조달 여부			-0.015	(0.015)
부모에게 생활비 받는 비율 (기준=받지 않는다)	10% 미만			0.215***	(0.044)
	20~40% 미만			0.139***	(0.049)
	40~60% 미만			0.355***	(0.079)
	60~80% 미만			0.191*	(0.108)
	80~100% 미만			0.332**	(0.128)
	100%			0.355**	(0.105)
Marginal effects after logit		0.192		0.188	
관측치		3,909		3,653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0.01, ** p<0.05, * p<0.1

V. 결 론

본 연구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모형. 1]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나이가 적을수록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확률이 높았다. [모형. 2]에서는 토익점수가 높을수록, 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 비해, 직업훈련 및 교육경험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 비해 사회연결망을 통해 입직할 확률이 낮았다. [모형. 3]에서는 교육 대학 졸업자는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비공식 입직경로를 활용할 확률이 낮았고 서울소재 대학 졸업자에 비해 지방소재 대학 졸업자의 사회연결망 경로 취업 확률이 더 높았으며, 인문계열 졸업자의 경우에는 인문계열이 사회, 공학, 의약계열에 비해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 및 예체능계열 졸업자의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확률은 유의하지 않았다. 현재 부모소득과 부모로부터의 대학 학비조달 여부가 자녀의 입직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소득과 부모로부터의 학비조달 모두 자녀의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모형. 4]). 한편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 혹은 생활비의 비율이 자녀의 비공식 입직경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자에 비해 용돈 혹은 생활비의 명목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 또한 받은 생활비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경제적 의존성이 높으면 그 자녀가 가족, 친지, 지인의 소개와 추천이라는 사회연결망을 통해 입직할 확률이 높아지며 그 영향력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만약 사회연결망과 같은 비공식경로를 통한 입직이 노동시장이 다하지 못하는 일자리 매칭(job matching)를 높여준다면 사회효용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의 경우 스스로 획득한 사회 자본으로서의 사회연결망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같은 가족배경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에서 청년층의 부모세대에 사회적·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더 나은 조건의 직업을 오랫동안 탐색할 유인을 제공하거나(박강우·홍승제, 2009)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즉 부모의 재정적 지원이 대학을 갓 졸업한 자녀의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근로자 생산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가 입직경로에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소득 및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자녀의 취업경로에 미치는 효과 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자녀의 사회연결망을 통한 입직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사회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수행해 시장이 다하고 있지 못한 일자리 매칭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추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선업·임희섭·박길성(1993) 「연출망과 연고주의」, 『오늘의 한국사회』, 169~190쪽, 도서출판 나남.
- 김성훈(2003). 「취업자의 사회 연결망 활용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6권 제3호, 209~230쪽.
- _____ (2005). 「사회 연결망과 공식 경로를 통한 첫 취업의 개인적 결과와 사회적 결과」, 『한국사회학』, 제39권 제1호, 53~85쪽.
- 김영철(2012). 「'연줄'인가, '연결'인가?: 인적 네트워크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34권 제3호, 133~186쪽.
- 김용학(2004).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 김현주·이병훈(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제30권 제1호, 125~148쪽.
- 박강우·홍승제(2009).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금융경제연구』, 364호.
- 방하남·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제36권 제4호, 133~222쪽.
- 오성욱·김균·이만기(2010). 「취업(채용)경로별 이용특성 분석을 통한 공공고용서비스(PES)의 발전방향」,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고용정보원(2009). 『2008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Blau, David & Philip Robins(1990). "Job Search Outcomes for the Employed and Unemploy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Vol.98 No.3, pp. 637~655.
- Calvo-Armengol & Matthew O. Jackson(2004).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Employment and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4 No.3, pp. 426~454.
- Coleman, James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 S95~S121.
- Datcher, Linda(1983). "The Impact of Informal Networks on Quit Behavior",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5 No.3, pp. 491~495.
- Davis-Kean, P.(2005). "The Influence of Parent Education and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The Indirect Role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the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19 No.2, pp. 294~304.
- Elliott, James(1999). "Social Isolation and Labor Market Isolation: Network and Neighborhood Effects on Less-Educated Urban Workers",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40 No.2, pp. 199~216.
- Granovetter, Mark(1995).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5). "The Impact of Social Structure on Economic Outcom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9 No.1, pp. 33~50.
- Ioannides, Yannis M. & Linda Datcher Loury(2004). "Job information networks, neighborhood effects, and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42 No.4, pp. 1056~1093.
- Kramarz, Francis & Oskar Nordstrom Skans(2006). "Nepotism at Work? Family Networks and Youth Labor Market Entry", Unpublished.
- Lentz, Bernard F & David N. Laband(1989). "Why so many children of doctors become doctors: nepotism vs. human capital transfers",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24 No.3, pp. 396~413.
- Lin, Na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 Marsden, Peter & Hurlbert, Jeanne(1988). "Social Resources and Mobility Outcom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Forces*, Vol.66, pp. 1038~1059.
- Montgomery, J.(1991). "Social Networks and Labor Market Outcom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1, pp. 1408~1418.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09). OECD statistics, Paris: OECD.

-
- (2012). “2012 Employment Outlook”.
- Ports, Michelle(1993). “Trends in Job Search Methods: 1970-1992”, *Monthly Labor Review*, pp. 63~67.
- Reid, Graham(1972). “Job Search and the Effectiveness of Job-Finding Methods”, *Industrial Labor Relations Review*, Vol.25, pp. 479~495.
- Scoppa, Vincenzo(2009). “Intergenerational transfers of public sector jobs: a shred of evidence on nepotism”, *Public Choice*, Vol.141 No.1/2, pp. 167~188.

Abstract

A Study on Employment Determinants through Social Networks

Jung Hanna

Kim Sangkee

In this study, we define "employment through social networks" as employment through introduction or recommendation of family members, friends, and acquaintances, and utilized data from the "2008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Empirical findings from the logit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dividuality, personal productivity,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from which one has graduated, and economic support from parents are as follows: first, employment through the social networks is more frequent for those people who have fewer licenses, less job training, less education, lower scores for the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OEIC), 2-year/local college students, or liberal arts major students. Parents' income and support for school expenses are not significant variables; however,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the amount of the support significantly increase the probability of finding a job through social networks. If employment through the social network supplements employment through a more formal path in terms of "job matching", its effect can be considered positive. However, we can infer that employment through the social network can also act as a discriminatory factor if personal productivity has less of an effect on employment than the social network does.

Key word: Social network, Employment path, Personal productivity,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from which one has graduate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arents